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, '홈데코' 카테고리 개편

2019. 9. 16.

- **소품부터 소가구까지 260만여 종, 15개 카테고리로 세분화**
- **공간별 데코 페이지 마련 검색 손쉽게**

2019. 9. 16. 서울— 쿠팡은 가을을 맞아 홈데코 카테고리를 새 단장했다고16일 밝혔다.

쿠팡은 기존'홈데코' 카테고리를 개편하면서 260만여 개의 홈 인테리어 상품을15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. 큰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어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러그나 쿠션 등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. 이에 공간을 아늑하게 바꿔줄 수 있는 디퓨저, 조명, 러그 등 소품부터 선반, 장식장 등 소가구까지 상품군별로 모았다. 또 캔들, 쿠션, 단열벽지 등 가을 인테리어에 많이 찾는 아이템들은 따로 배치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.

특별히 인테리어를 어려워하는'인알못' 고객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간별 데코 테마를 마련했다. 벽/천장 데코에 어울리는 펜던트조명, 그림액자 등과 창문 데코용 줄조명, 바닥 데코용 패브릭매트, 샤기러그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.

대표 상품으로는'엘레나하임 라탄 룩 러그'로 쿠팡가 5만3000원대이다.손쉬운 설치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'체코5등 직부 조명'은 4만7000원대, 침대 맡 무드등부터 알람시계, 무선충전까지 가능한 '무아스LED 무선충전 탁상시계'는 3만9000원대이다. 디퓨저에 유칼립투스 가지를 꽂아 디자인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'리피에노 가을가을해 디퓨저 세트'와 캔들 워머 높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'양키캔들 대+ 블루오션 매직 워머 블랙 캔들선물세트'는 각각 1만8000원대, 5만3000원대이다.

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"계절에 따라 집 안 인테리어를 바꿔보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을맞이 '홈데코' 카테고리를 개편했다"며"앞으로도 다양한 홈인테리어 상품들을 모아 테마관을 꾸준히 선보일 것"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